



아시아 넘어 세계로

하 창 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회가 설립된지 30년이 되었다.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느껴진다. 30년이란 세월은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 과학사를 생각해보면 30년의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초,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김성철 교수님의 지도와 조의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고분자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부산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분자관련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발표논문 900여 편, 참석자 수 1,200여명에 이르는 오늘날의 봄, 가을 연구논문발표회를 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우리 대학원생들은 1980년대 초 당시, 연구논문발표회 논문수가 20여 편도 되지 않던 시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표논문 수뿐만 아니다. 폴리머지는 물론이고, *Korea Polymer Journal*로 시작된 영문지 *Macromolecular Research*의 SCI 등재 등 학술지의 발전도 괄목할 만하다. 지난 30년간, 많은 회원들의 노력으로 세계의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 고분자과학의 학문적 수준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회원들의 학문적 수준이나 학회활동의 국제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30년간의 우리학회의 발전역사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자축해야 마땅할 것이다. 1970년대 중순 우리 학회를 창립한 선배님들의 노고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를 운영하면서 앞장서서 학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은 물론이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회원 모두가, 한국고분자학회 30년의 주역이리라. 하지만, 오늘의 경사는 지나간 과거의 눈부신 발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30년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을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할 것이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물론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하는 말이지만, 과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은 가장 우리 것을 통하여 가장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더구나 과학기술계의 무한경쟁은 두려울 정도이다. 회원 각자들의 개인적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속한 우리 학회와 세계의 학회들 간의 수준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을까 자문해보면 반드시 '그렇다' 라고 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동안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흉내 내며 국제학술회의도 수차례 개최하고, 영문지도 발간하는 등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조금은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우리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나 자신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학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엔 세계의 중심학회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학회 회원들의 잠재력을 보면 충분하다. *Macromolecular Research*를 통해서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제 1의 한국고분자학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 각자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학회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쓸 때쯤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고분자학회가 되어있기를 희망해본다.